는 사람이 참불자

서 뵌 큰스님

님 (각화사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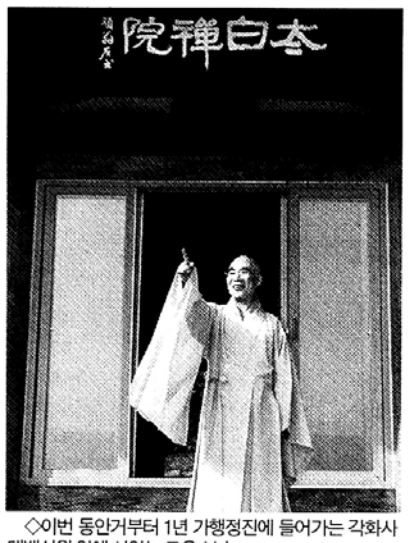
하루 15시간씩 가행정진(加行精進)을
가행정진' 이라는 새로운 가풍을 선언했
5시간이상씩 무섭게 정진하는 가행정진
이번 삼동결제부터는 아예 1년내내 가
가행정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각화사의
가일충 공부를 하여 앞으로 10년만 계
대가 되어 한국불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愚)스님의 원력이 자리하고 있다.
있지만 방부들인 수좌가 이미 30명이
은 "서로서로 배우고 탁마하고 공심을
면서 정(定)을' 익혀가는 선방으로서의
다.

철저하게 시켰으면…"

온 스님은 대표적인 선승이지만 늘 책을 손
서 놓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올 봄부터
화사 태백선원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3년
안 교육을 시킬 상설 행자학교를 종단에서
들어주면 교장을 맡아 부처님법에 대해 확
히 이해시킬수 있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싶
" 는 원력을 내 보이셨다.

전에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기복불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
만나고 나쁜 것은 안 만나겠다는 게 기복불교예
좋은 일 만나고 나쁜 일 안 만나는 것이 불교가
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서 기분나
고, 칭찬해서 기분좋고, 손해보여서 기분나쁘고,
친다든지 그런 나쁜 일을 가급적 피했으면 합니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봅시다. 늙고 병
고 죽는 것은 나쁜 일인데 그것 안 만나나요? 만나
게 그것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빈다고
서 안만나지냐는 거지요. 만나고 싶지않은 것을
만나게 하고, 만나고 싶은 것을 만나게 하는 그것
부처님법에 의해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가 해결
가는 것이 진짜 안 만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
아요. 그러니 그것을 법에 입각해 바로 보고 해결해 가는 방법이 진짜 안만나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금강경〉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로 보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진짜 안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만나게 해 달라고 빌어. 무조건 나쁜 것은 안만나고 좋은 것만 만나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부처님앞에 가서도 욕망만 커집니다.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은 좁아지거든. 거기에선 탐진치가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세속에서 찌든 마음, 탐진치를 제거하고 뭔가 잘 살아보자고 부처님앞에 온 사람들이 도리어 탐진치 키우는 일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집착심이 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하면 부처님만 원망해. 스님 원망하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나쁜 일을 만나게 하다고' 개종도 하고…"

간화선에 대한 일부의 비판이 나오면서 소위 '제3수행법' 이라 불리는 수행에 대한 관심과 동참자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스님들도 많이 체험하고



◇이번 동안거부터 1년 가행정진에 들어가는 각화사 태백선원 앞에 서있는 고우스님.

있는 실정이다. 이 수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불교수행은 첫째가 정진 단계, 그 다음에 삼매단계, 다음에 깨달음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진단계도 그렇고 삼매단계도 그렇고 깨달음 단계도 그렇고 거기에 일관되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일관된 공통점이라는 것은 수행하다 보면 우리 의식이 그렇게 공통되어 간다는 뜻이지요. 정진단계에 들면 우리 의식이, 불교가 아닌 다른 수행의 삼매에서는 거의 적적(寂寂), 고요지요. 즉 그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행위가 정지해요. 의식도 정지하고 생리작용도 정지해요. 깊이 들어가면 먹지도 않고 배설도 않고 생리작용도 정지합니다. 그런데 불교수행은 다릅니다. 처음에 싣달타가 출가해 웃다라라를 찾아가 배운 수행이 그랬어요. 삼매에 들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은데 삼매에서 깨고 나면 불안하고…. 깨어있을 때나 삼매 들어 있을 때나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진짜지 이것은 아니다 해서 독자적으로 공부해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원리를 깨달으신 것이잖아요."

불교의 삼매 특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셨다.

"적적(寂寂)과 성성(惺惺)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겁니다. 불교공부 외에는 '적적성성' 의 경지에 들어갈 수 없어 적적성성하면 아무리 삼매에 깊이 들어가더라도 배가 고프면 정확하게 밥먹으러 식당으로 갑니다. 또 용변보고 싶으면 정확하게 변소에 가요. 적적만 있다면 삼매에 들었을 때, 용변보러 간다는데 식당으로 갈 수가 있고, 밥먹으러 간다며 변소로 갈 수가 있어요. 삼매에 들었을 때나 깨어있을때나 양쪽 다 삼매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불교수행의 특색입니다.

수행자가 정진단계에서도 적적성성 삼매를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나 지속되지 않고 간단(間斷)이 생기죠. 됐다 안됐다, 됐다 안됐다 하는데 이것을 정진단계라 해요. 그러다 수행이 깊어져 삼매단계에 이르면 적적성성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 지속되는 단계를 뛰어 넘으면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고, 적적성성 삼매가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대할 때 그것을 이기심으로 대하고 처리하는데, 적적성성삼매를 100% 성취하면, 탐진치를 세탁을 해가지고, 이기심이나 욕망 하나 없는 순수무구한 의식으로 사고(思考)하고 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행위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요. 그것을 공심(公心)이라 해요."

'적적성성' 의 경지를 이룰수 있는 것은 불교수행뿐이지 다른 수행은 적적은 될지언정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 괜히 시간만 축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3수행법' 이란 것은 불교하고는 상관없는 수행이라고 봐도 될 거라고 하셨다.

고우스님은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주는 책이 있다. 바로 성철스님의 〈백일법문〉. 두 권 한질을 한첩에 100질씩 갖다놓고 스님이나 신도 누구에게나 보시하신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꼭 읽을 것을 약속받고 다음에 오면 집중적으로 물어보신다. 꼭 읽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불자라 하면서도 불교의 핵심인 연기, 중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연기와 중도에 대해 체험은 못하더라도 이해만 해도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냅니다. 그러면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일에 충실하게 돼요. 자기의 존재 원리 하나 알면 삼라만상 원리를 아는 것이고 같은 원리로 존재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생활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지요. 연기법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맑아지고 안정될 겁니다. 남해치는 일은 일체 없을 테니까."

스님은 티베트불교보다 한국불교의 수준이 엄청 높지만 달라이라마 만큼 세계인들에 감복과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것은 실천의 유무 때문이라고 하셨다.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생활화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라고 보신다.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언행일치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스님은 지금처럼 출가한 지 6개월만 되어도 사미(니)계를 주는 제도를 보완해 최소 3~4년을 한곳에서 교육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법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중노릇이 제대로 됩니다. 그게 안 바뀐 사람이 수행한다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글= 이경숙 기자, 사진 = 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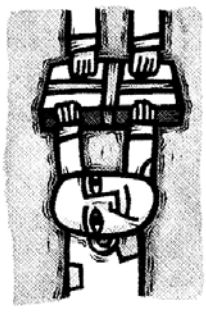


리선행 법사의 스님이야기

홍도스님 (4)

유난히 자비심이 많았던 홍도스님에게는 자연히 신도들이 많이 따랐다. 당시 보현정사 만큼 각계각층의 신도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도 드물었을 것이다. 보현정사가 무허가 건물이라 집달리에 의해 부처님이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일도 있고 셋방살이 신세를 지며 정진하던 때도 있었지만 스님의 부지런함과 차별없이 대하는 태도는 수많은 신도들을 보현정사로 이끌었다. 신도들 중에는 잘 사는 상류층도 있었지만 중류 이하 서민층 신도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홍도스님은 누구에게나 자상했고, 집착없는 무소유를 보여주었기에 신도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스님을 따랐다. 그들은 가정생활의 여러 문제점과 사회생활의 어려움도 스스럼없이 스님께 털어놓고 상의하였다. 스님은 그때마다 마치 부모가 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상담에 응해 주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생활이 어려운 신도의 보증을 잘못 서서 애태운 일도 있었고 취직자리를 알선해 주느라 고생한 일도 여러번이었다.



당시 스님이 주석하던 보현정사가 후암동에 위치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대문 시장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 크고 작은 가게를 수십 군데 들르며 안부를 물었고, 노점상을 하는 신도들은 가게의 발전을 축원해 주길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스님은 어느 누구의 요청도 물리치거나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싫어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구도자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라 믿는다. 스님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누구에게도 짜증스런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항상 적극적이고 부지런했으며 최선을 다했다.

어느날 스님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없는 스님을 어렵사리 사립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그때 병문안 온 어느 신도가 스님 목욕하신 후에 입혀드리라고 내의 한 벌을 사왔다. 그런데 스님은 내의 포장을 뜯지 못하도록 했다. 나중에야 알게됐지만 스님은 혹시 산사에서 수행하는 도반이, 입원 소식을 듣고 찾아오면 그 내의를 줄 생각이었던 것이다. 서울에서야 언제나 사 입을 수 있지만 산골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기에 수행하는 도반에게 주어야 겠다는 배려때문이었다. 스님은 승복도 꾀죄죄한 것 단 두벌 뿐이었다. 여름철에는 땀냄새를 지우기 위해 수시로 빨아서 채 마르기도 전에 입고 나서서는 시원해서 좋다고 하며 웃으시곤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하여튼 스님의 검소함은 유명했다. 그런 스님께서 내 학비에 보태 쓰라고 금반지 하나를 건네주신 적이 있다. 나중에 살펴보니 그 반지는 며칠전 스님의 생신때 신도들이 돈을 모아 기념선물로 마련해 드린 것이었다. 나는 그런 의미있는 선물은 받을 수 없다며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스님은 "내게 이 물건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어울리지도 않는다"며 기어코 내 손에 쥐어주셨다.

한번은 홍도스님과 함께 어느 상가집에 갔다. 달동네에 사는 혈육 하나 없는 아주 외롭고 가난한 여인이 죽었던 것이다. 상주도 없는 무연고의 그 가난한 상가에서 3일동안 어찌나 정성스레 염불을 해 주시는지 옆에 있던 나는, 이 여인의 영혼이 스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극락왕생 했으리라는 믿음이 들 정도였다. 홍도스님은 길을 가다가도 병원만 보이면 영안실에 들러 염불을 해주시곤 했다. 대불련 학생들도 스님을 따라 병원 영안실에 들러 영가를 위한 염불에 동참하곤 했다. 물론

길가다 영안실 들러 염불 '여러번'

군승단 창설 위해 밤낮없이 애써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상주쪽에서 사례를 하려해도 극구 사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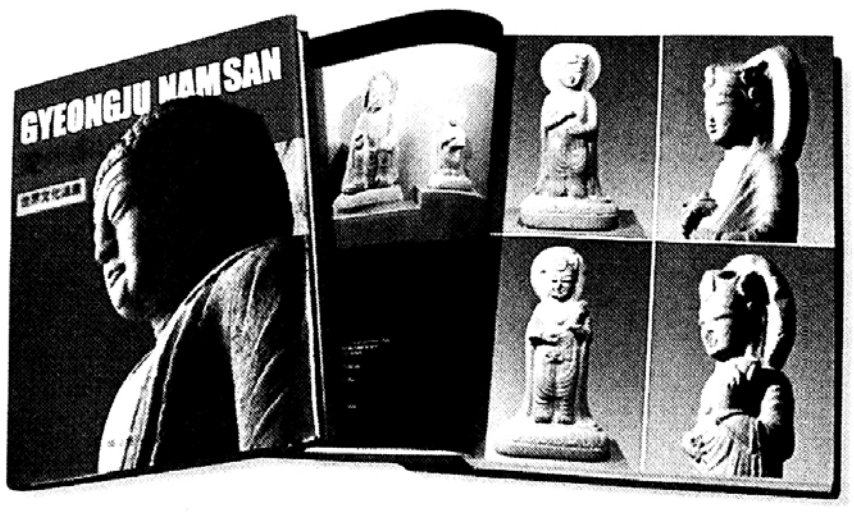
홍도스님은 어느 누구보다 군포교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불교계가 염원하던 군승단의 창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뛰었다. 새벽예불 때마다 발원하였고 혹독한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국회의 국방전문위원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군법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이 어찌나 간절하고 끈질겼던지 나중에는 그 사람들 전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야 말았던 것이다. 군부대 위문 가면 장교들을 일일이 만났고 그들의 생년월일을 다 적어두었다. 생일이 되면 역시 떡을 해 부처님전에 축원을 올리고 떡을 들고 전방에 찾아가 그들을 감복시킨 것이다. 오로지 불교포교를 회두로 삼은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보현정사를 건립하고는 절에 '군경학생교화회관' 이라 이름붙여 군법사들 숙소로 우선 배정했으며, 군부대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스님은 어떤 것보다도 '한국불교군경학생교화회관장' 이라는 호칭에 만족해 하셨다.

하루 3시간 이상 자는 것을 보지 못할 만큼 포교를 위해 밤낮으로 뛰고 또 뛰었던 홍도스님. 스님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과로끝에 44세라는 나이에 그렇게 빨리 입적하시지 않았나 해 지금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끝)

횡성 '마음의 쉼터' 회주

慶州南山 - 세계문화 유산,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

그 방대한 자료를 완전 올 컬러 특대판형 전 2권 으로 간행



2권 1세트 23만원

▣朝鮮日報
'신라 역사박물관' 경주 남산의 모든 것
이 책, '경주남산'은 말 그대로 경주 남산의 모든 것을 담은 야심차고 우직한 기획의 결과이다. 도판편과 해설편 등 2권의 책은 어린이들은 들지도 못할 만큼 무겁다. 그 무게는 그대로 신라 천년의 역사가 갖는 무게로 느껴진다. 140곳에 이르는 절터, 80여 구의 불상, 90여 기의 석탑, 13기의 왕릉, 4개의 산성, 중요문화재 사진과 탁본 실측자료등 무려 800여 점이 실렸다.

▣중앙일보
'골마다 불상 · 석탑 온 산이 절이로다'
4년여 현장조사 『경주 남산』 완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p.go.kr)가 지난 4년간 조사를 맡았으며, 그 결과가 『경주 남산』(23만원)이란 책으로 최종 정리돼 최근 출간됐다.
4년간 2백여 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문화재는 모두 6백 72건. 절터는 1백47개소. 일제시대 조사 결과의 두 배나 되며, 골짜기마다 2곳 이상의 절이 들어서 있었던 셈이다. 돌로 만든 부처와 보살상은 1백 7구, 석탑은 모두 96기.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왕릉과 비석 등을 찾아냈다.

▣동아일보
남산의 불교유적을 비롯해 선사유적, 신라왕릉, 고려 ·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산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의례, 남산의 수려한 자연유산 등을 모두 담았다. 도판편 · 해설편 2권으로, 특대판형에 총 700여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5년간 200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물의 결과이다.

▣釜山日報
- 세계 문화유산 '남산' 의 모든 것 2권에 오롯이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이번 종합 도록은 관련 학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일반인들에게도 보다 쉽고 진지하게 남산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보신문
"한국불교 원류 한 권으로 응축"
이번에 발간한 종합도록은 지난 98년 경주 지역에 대한 5개년 정비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된 남산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다. 사진만을 모은 도판편은 지난 2000년도 호주 케이즈에서 열린 유네스코 전체 회의에 자료로 제공돼 남산을 포함한 경주 일대가 경주역사유적지구로 묶여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佛敎新聞
- 경주 남산이 책갈피에 '쏙' -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신라의 영산이며, 우리 민족의 성소인 경주 남산이 책속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으며 골짜기마다 간직한 신라인의 불심(佛心)과 예술 혼을 책은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현대불교
- 골마다 절터, 바위엔 불보살 -
경주 남산은 우리 나라 미술사학계의 대부 고유섭이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고자 한다면 경주 남산에 가 보아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나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고다.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編 圖書出版 民族文化 釜山廣域市 南區 大淵 1洞 1754-11號 전화 051)627-2366, 627-2367 / 핸드폰 018)516-2366 / 팩스 051)627-2368